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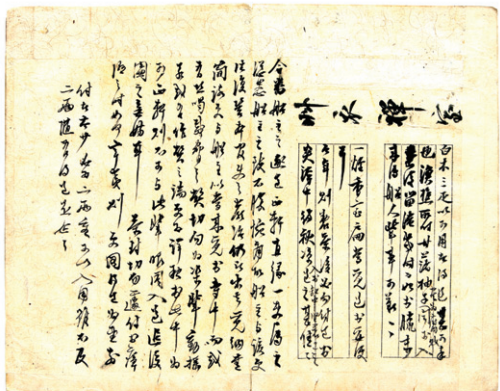
〈벽해타운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귀한 자료이다. 이 편지에는 초의가 추사에게 보낸 차의 포장법과 추사의 차에 대한 식견을 한눈에 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제주시절,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는 차를 청하는 길명(乞茗)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실제 그에게 보낸 초의차의 포장법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그리 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편지에 “차는 항아리에 넣어 견고하게 싸서 보내십시오”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셈이다. 아울러 차의 이론에 해박했고, 체득을 통해 얻어진 추사의 식견은 “차를 만든 다음 반드시 덥고 습한 여름에 보내지 마시고, 서늘한 가을을 기다린 후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는 한변이라도 오염되면 차의 진성이 사라진다는 초의의 견해와 일치점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한편 초의선실로 보낸 이 편지는 벗이 보내준 백목을 받고, 그에 대한 감사를 담담히 드러냈고, 추신(追信)으로, 쓴 편지에는 제주를 왕래하는 선주가 아전의 종용으로 추방의 변고를 겪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방 이숙들의 횡포가 심했던 당시의 사회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인 셈이다.

초의선실은 바로 일지암이다. 여기에 걸린 ‘일로향실(一爐香室)’이 못내 궁금했던지 편한 인편(妥便: 소치)에게 보낸 편액을 찾았는지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편지는 대략 1844년 봄 이후에 보낸 것이라 추정된다. 편지의 말미에 다시 산이화를 보내달라는 추사의 청이 간절한 이 편지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차는 항아리에 넣어 견고히 포장”



벽해타운첩

“茶, 서늘한 가을에 보내 주세요”

산이화 다시보내 달라 간절히 부탁

3필이나 되는 백목을 쓸 만큼 보내주셨으니 매우 다행합니다. 시골 어부 편에 보낸 감자와 유자는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듣자니 (이 물건이) 제주로 도착한 후에 얼마 동안 그냥 지체시켰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선달 말 쯤 전해질 것이라 하더니 선인들의 일은 탄식할 만합니다. 일로향실 편액은 (편한 인편인) 소치에게 보냈는데 찾았는지요. 금년에는 차를 만든 다음 반드시 덥고 습한 여름에 보내지 마시고, 서늘한 가을을 기다린 후 보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차)는 항아리에 넣어 견고하게 싸서 보내십시오.

(白木三疋 以可用者得送 甚可幸也 漁熊所付甘藷柚子 盡爲腐敗 關於入島後 留淹幾時 而始於臘末來傳 船人叢事 可歎可歎 一爐香室扁當寬送於

妥便耳 今年則製茶後 必勿付送於炎缸中 待秋涼送之 甚佳甚佳 入於缸中 堅裹送之)

이번에 선주(船主)가 수령에게 쫓겨나게 된 것은 바로 어떤 아전이 종용하여 선주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니 놀랍고 한탄스러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주와 해당 이숙이 얽힌 일은 본영의 관리가 엄히 다스려 바로 (이들을)내보낼 것이니 보낸 편지를 해당 아전과 선주에게 찾으세요. 사중에서 찾으려 할 때에 혹 공갈과 협박하는 일이 있다면 일체 그들에게 동요되지 마시고, 혹 협박한 단서가 있으면 다시 이곳으로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령은 즉 이런 무리들과 똑같이 않을 것이니 제주로 보내는 일은 추후에 다시 도모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차 봉지는 절대로 습한 때에 황급히 보내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산이화는 다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번에 보낸 산이화가 너무 적습니다. 반드시 두 량이 되어야 쓸 수 있는데, 실령 두 량이 안된다하더라도 이어 보내주시길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今番船主之逐送正軒直緣一吏屬之德 患船主之致 不勝惋惜 故 船主與該吏往復營管 使之嚴治 仍即出去 覓納書簡 該吏與船主 似當來覓於寺中 而或有恐喝威脅之弊 切勿爲渠輩動搖 若或有作弊之端 更爲詳報於此中 爲可 正軒則不可與此輩眼同 入送追後圖之 無妨耳 茶封切勿遽付於瘴濕之時 如何 辛夷則更圖得送 爲望 前付者太少 必爲二兩重 可以入用 雖不及二兩 隨有得送 是企是企)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北 아이들도 아침밥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애경 보살 (정교회 평화재단 자원활동가)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며, 미움과 갈등, 원망을 해소하기 위해 7천만 민족을 대신해 참회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염원하며, 소비와 소유를 위한 욕망과 어리석음을 해소하기 위해 못 생명을 대신해 참회합니다”

정교회 평화재단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애경 보살이 매주 월요일 새벽 임진각에서 1시간씩 절기도를 하며 읽는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참회정진’ 발원문이다. 그녀가 이렇게 매주 임진각으로 향하는 이유는 뭘까? 대한민국이라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 그녀의 기도가 던져주는 의미는 뭘까?

평화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결국 남북 관계가 안 좋으니 이렇게 젊은 장병들이 죽는구나. 오랫동안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불교사회운동을 해왔는데 또다시 남북관계가 나빠진 것을 보고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친 병사들과 유가족들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죠”

2011년 12월 그녀의 ‘평화통일 기원’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제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뿐이었어요. 그래서 범용 스님께 기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일주일만 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광화문에서 기도를 시작했죠.”

영하 18도의 날씨에 그녀는 광화문으로 나섰다. 어떤 도반은 도시락을 싸다 주었고 어떤 이는 옷을 가져다주기도 했고 누군가는 운전을 못하는 그녀를 위해 차를 태워주기도 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녀는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를 위한 정진을 했다. “계속 절하면 안 추워요.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잖아요. 부처님은 고행도 하셨는데 그 정도야 괜찮아요” 춥지 않냐는 질문에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답한다. 그 미소는 세상의 아픔을 다 녹이고도 남을 것 같이 평화롭고도 넉넉했다.

그녀의 기도는 일주일만 넘어 연말까지 이어졌고 이후 2012년 청와대 앞에서 3일간 만배 정진, 또다시 광화문 21일간 철야정진에 이어 임진각에서 6.25희생자들을 위한 천도제 및 300배 정진과 평화명상 등을 이어왔다. 그리고 2012년 7월 첫주부터 매주 월요일 임진각 새벽기도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굶어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 때문이다.

“저는 북한아이들의 부모 입장이 되어 참회를 해요. 만약 내 아이가 굶어죽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아이들이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저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좀더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더 나아가 평화통일이 된다면 최소한 아이들이 밥은 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추울 때는 화장실에서 몸을 녹여야 했고 왜 북한을 돕냐는 비난도 받아야 했지만 그녀는 얻은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전한다. “제가 기도를 시작하니 이제 김계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의 도반들이 같이 와 기도를 해주고 격려해주요. 많은 도반들이 릴레이 기도로 동참을 해주기도 하고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식이든 옷도 챙겨주셨죠”

평범한 군무원이 거리로 나온 까닭은?

그녀는 96년전까지만 해도 마산국군병원 군무원으로 일하는 직장인이었고 한 가정의 엄마이자 아내로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그녀가 통일운동에 나서게 된 것은 정교회 지도부 사역팀과의 만남이었다. 당시 그녀는 불교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에 정교회 부산동래법당으로 불교대학을 다녔다.

“법륜 스님께서 법문을 오셨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전부 굶어죽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너무 슬퍼서 같이 울었어요. 그때 마침 우수공무원에게 주는 특별 상려금이 46만원을 받았을 때라 보시금으로 3만원을 냈까 5만원을 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스님의 법문을 듣고 23만원을 보시했어요.”

다음날 출근을 해 직장 군법당(마산국군병원)에서 삼배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났다. 그녀는 북한 어린이들을 더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내성적이었던 그녀가 타박에 나서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군외관들을 찾아가고 선후배를 찾아가면서 돈을 모았어요. 처음하는 일이라 쑥스러웠지만 ‘나는 다만 할 뿐이다’라고 스스로 되뇌었죠.” 이후 마산국군병원 군법당을 다니며 알았던 스님들의 인연으로 인근의 절을 찾아 다녔다.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정월 성주사남해 보리암, 지리산 법계사, 남해 보리암 등을 돌며 모금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알던 스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특히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지원장 해보 스님은 사찰 모금활동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물론 저한테 어느날은 100만원을 주시면서 오늘은 모금 나가지 말고 쉬라고 격려도 해주셨어요. 그 후에도 여러번 큰 돈을 보시 해주셨죠”

그러던 어느날 성주사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일을 사찰 안에서 하지 말고 좀더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조언을 듣게 된다. 그녀 역시 그것이 맞겠다 싶어 모금통을 들고 마산역으로 나가 북한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외쳤다. 돈을 쥐어주면서 여관에 같이 가자는 취객부터 용돈을 털어주는 아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그녀는 또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

1996년부터 마산역 등에서

북한 어린이 돕기 거리모금

“비난도 많이 받았고 3만원 주며

여관 가지는 취객도 만났지만

고마운 사람 훨씬 더 많았죠.”

연평도 사태 이후 민족통일 염원하며

영하 18도 거리서 생명 평화 기도

요즘도 매주 월요일 새벽 임진각서

“처음 마산역으로 모금을 나갔는데 어떤 술취한 남자를 만났어요. 3만원을 줄테니 여관을 가져다 하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북한 여자들을 생각하며 한순간 돌이키게 됐어요. 그쪽 여자들이라면 어땠을까? 자식들이 굶어죽어가면 몸이라도 팔아서 애들 살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 그 돈 안 받고 여관 안 가면 되지만 그들은 굶어죽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모금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와줄 것이다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별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호소했다. 그러니 100원 200원도 털어서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오니 또 도와주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처음에는 모금함을 들고 다니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숨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가 생겼고 북한의 상황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분단으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안타까웠다. 특히 2001년 떠난 동북아역사기행에서 압록강변서 북한의 민동상을 보고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그녀는 ‘먹고 살기 위해 저 꼭대기까지 나무를 뽑고 밭을 만들었을 텐데 오죽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비난도 칭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녀는 2002년 직장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모금할

비난도 칭찬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았다 그녀는 2002년 직장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모금할

컵이 담긴 도자기 에코컵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에코컵으로 환경을 사랑해주세요.~^^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류	컵범어내용	판매가
Aset	마음+대장부	9,000원
Bset	마음+마음	9,000원
Cset	대장부+대장부	9,000원

● 컵 날개 5,000원 (택배비 별도)

● 2세트 9,000원 (택배비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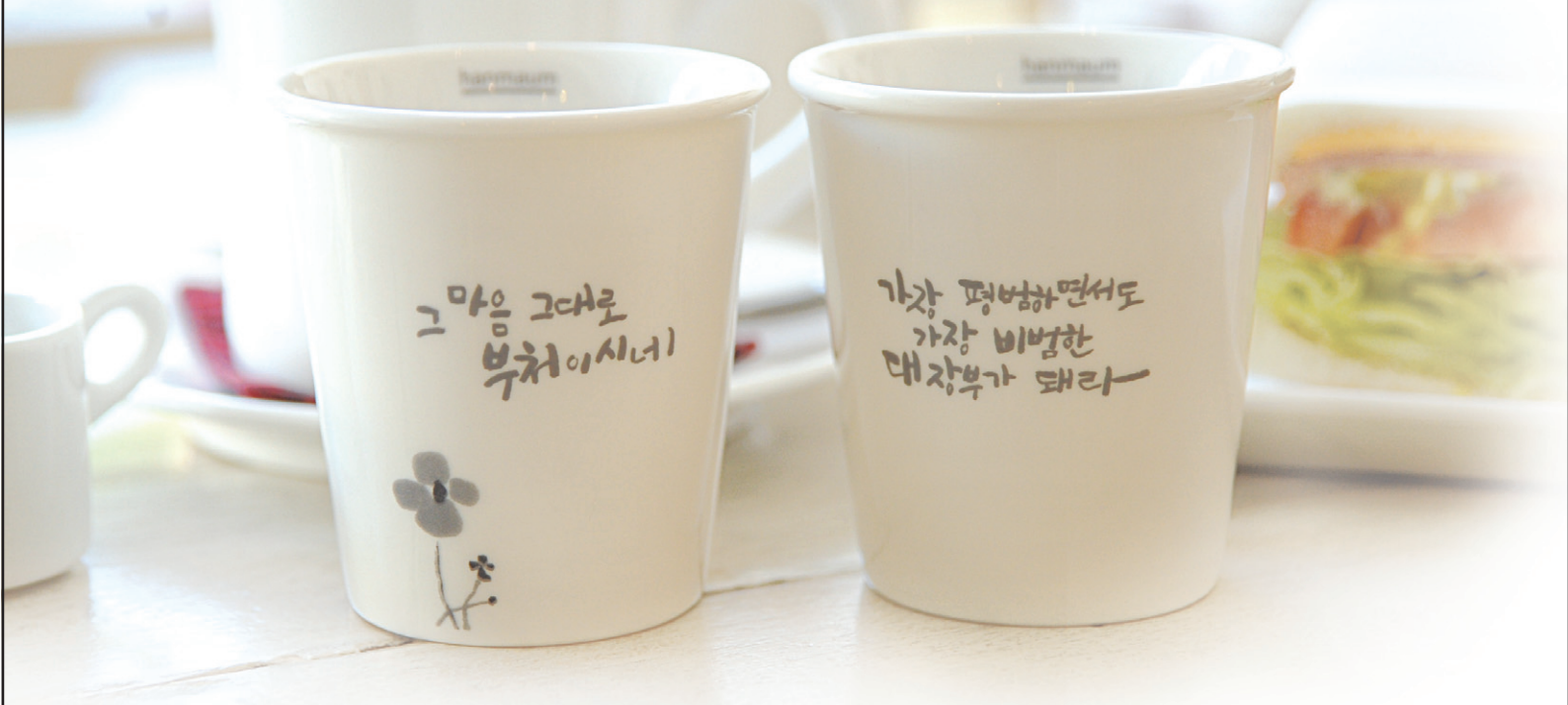
● 3세트 27,000원 택배비 무료 !!

> 범어내용 <

1. 마음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돼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유애경 보살은 매주 월요일 새벽 임진각에서 생명평화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2012년 겨울, 기도를 마치고 도반들과의 기념 촬영(사진 왼쪽 세 번째가 유애경 보살).